



27일 광주·전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이들이 광주서구 5·18기념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뉴시스

‘곡성 석곡 37.3도’ 광주·전남 가마솥더위… 전역 폭염특보

주말인 28일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이 대체로 35도 안팎으로 나타나며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곡성 석곡 37.3도, 구례 35.3도, 순천 황전 35.1도, 곡성 34.9도, 화순 34.3도, 광양·순천 32.8도, 영광 32.6도, 고흥 32.2도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자동기상관측지점(AWS) 중에는 조선대가 34.4도까지 기록했다. 공식 기상 관측 지점은 33.8도였다. 습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지

‘폭염경보 기준’ 체감기온 35도 안팎… 열대야 전망
“야외 활동·외출 자제… 가축 폐사 등 피해에도 대비”

표화한 체감온도 역시 대부분 34~36도 분포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역에서 전날 처음 내려진 폭염특보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발효된 뒤 유지 중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특히 29일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폭염특보는 주의보의 경우 하루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 경보는 체감온도 35도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전날 밤에 이어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일조량이 많았던 만큼 곳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오른 지역이 꽤 있는 만큼 29일에도 무더울 경우 경보로 격상 발효될 수도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연일 폭염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축 폐사 등 피해에도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재미 잡고 더위 잡고” 여름밤 광주 도심 여행 사직공원 전망대·미디어아트거리 빛의숲 등 야간명소 산책 대인예술아시장 미식 바캉스…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 ‘물 축제’ “연극·전시·자동차 극장까지” 실내서 즐기는 예술과 여가 추천

열대야로 잠 못 드는 7월, 광주 도심 속 야간 산책과 축제를 즐기며 더위 사냥에 나서볼까.
7월 광주의 밤은 예술과 미식으로 어우러진 대인예술아시장부터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물들일 물 축제, 다채로운 공연 등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심 속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광주의 야간관광콘텐츠를 소개한다.

◇야경 맛집 ‘도심 속 산책 명소’서 힐링

낮 동안 무더위에 지쳤다면 밤에는 야경을 즐기며 한층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사직공원 전망대’는 남구 양림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의 대표적 야경 명소다. 광주천과 금남로, 무등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특히 전망대 내부에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 공간도 마련돼 있어 단순 뷰포인트를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망대에서 이어지는 ‘사직 빛의 숲’은 사직공원 내 산책로 830m 구간을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꾸민 미디어아트 기반 야간 콘텐츠다. ‘사람들의 소원이 은하수가 돼 내려온다’는 콘셉트로 구성돼 자연 속 감성 체험과 예술적 몰입감을 함께 제공한다. 옛 한국은행 광주지점 부지에 조성된 디지털 정원 ‘금남나비정원’은 광주 도심 속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자

리잡고 있다. 주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인 나비상자와 발광다이오드(LED) 벤치인 나비쉼터를 볼 수 있고, 야간에는 35m 너비의 인공 폭포인 벽면에 프로젝션 맵핑으로 표현한 나비폭포를 즐길 수 있다.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도 여름밤 도심 산책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넓은 잔디와 감성적인 조 조명(스트링 라이트)이 어우러져 피크닉과 야경을 동시에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아시장부터 물축제까지’ 행사 다채

도심 속 산책을 통해 야경을 감상했다면 광주의 여름밤을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축제도 주목해보자.

광주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인예술아시장’은 예술과 미식, 체험이 어우러진 광주의 대표 야간 콘텐츠다. 올해는 ‘한여름밤의 미식 바캉스’를 테마로 오는 7월 5일, 12일, 19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운영한다. 청년 창작자와 시장 상인들이 협업한 먹거리 부스와 감각적인 푸드 콘텐츠를 비롯해 ‘대인 말차 막걸리’, ‘얼그레이 막걸리’ 등 MZ세대를 겨냥한 이색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흥겨운 음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물 축제도 열린다. 오는 7월26일 오후 2시부터 광산구 첨단1동 미관광장 일원에서 제2회 광산 워터락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2면에 계속> /박도일 기자

‘5·18최후항쟁지’ 옛전남도청 새이름은? 시민 설문조사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등 4개안 투표

복원이 진행되는 ‘5·18최후항쟁지’인 광주 옛전남도청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7월부터 시작된다.

29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옛전남도청 새 이름 선호도 시민 조사를

다음 달 7월 첫째주부터 진행한다.

시민 조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안은 4가지로,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

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이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이달 개최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명칭 서면 조사를 거쳐 8개 항목 중 선호도가 높은 상위 4개안 골라 조사를 진행한 다.

현장 투표는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는 7월 첫째주 금남로 일대에서 부스를 열고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려진 2~3개안을 바탕으로 전국민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 최종 명칭을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옛전남도청 운영주체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

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구성할지 논의하는 2차 토론회도 조만간 개최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옛전남도청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새 이름을 정할 예정이다”며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27일 시민군이 진압 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선 최후

항전지다. 도청이 2005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뒤 인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원형이 훼손돼 복원이 진행됐다.

복원 사업은 13만9506㎡일대 6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시관은 시설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 개관 예정이다.

/염선호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